



연분홍 연꽃의 빛속 자태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3일 오후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에 핀 연분홍색 연꽃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3 해질 19:51
 일출 11:30 일몰 23:40

우산 챙기세요

오후에 한두차례 소나기 오는 곳 있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비	20/29	보성	흐림	20/26
목포	흐림	20/26	순천	비	20/28
여수	흐림	21/25	영광	흐림	20/28
나주	비	20/29	진도	흐림	20/25
완도	흐림	20/25	전주	비	20/30
구례	비	20/29	군산	구름 많음	20/28
강진	흐림	21/25	남원	비	19/30
해남	흐림	21/26	흑산도	흐림	20/25
장성	비	20/2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
남부	면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남서~서	0.5
서부	면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생활지수

식중독	74
운동	10
빨래	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간	높이	시간	높이
여수	06:14	11:35	18:34	23:42
	00:50	06:56	13:10	19:12

◇주간 날씨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11(금)
21/28	21/26	23/27	23/30	24/29	24/28	23/28

무등산서 멸종위기 구렁이·삻·담비 서식 확인



노란목도리 담비



구렁이



삻

생명의 보고(寶庫) 무등산에서 문헌 상에 그 존재를 알렸던 구렁이의 실체가 최초로 확인됐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3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된 노란목도리 담비, 삻, 하늘다람쥐, 구렁이의 영상자료를 담아냈다. 동부사무소가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는 것으로, 무등산국립공원 동부권(담양·화순) 내 동물이 오가는 길목에 설치됐다.

담비, 삻, 하늘다람쥐는 지난해 실시된 자연자원 조사에서 그 실체가 확인

국립공원사무소, 모니터링 결과

오소리·오색딱따구리 등

포유류·조류 22종도 발견

됐으나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소리와 노루, 족제비, 고슴도치 등 포유류 10종 및 오색딱따구리 등 조류 12종도 함께 확인됐다.

앞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지난 4월 펴낸 '무등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최종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식물은 1063종, 포유류 25종, 조류 106종, 어류 19종, 곤충 1307종, 파충류와 균류 1148종 등 모두 3668종이다.

광주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야말로 '야생 동식물의 천국'이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보호종은 수달, 담비, 삻 등 멸종위기종 13종과 독수리, 올빼미 등 천연기념물 11종 등 모두 24종에 달했다. 한반도에만 서식하는 고유종도 한국산개구리, 산골조개 등 47종에 이르렀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김보현 자연보전과장은 "이번에 처음 발견된 구렁이를 포함해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을 통해 무등산 자연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생명의 보고 무등산의 훼손을 막고 동식물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목포 남항부두 기름 유출

해경, 긴급방제 작업 나서

3일 오전 6시30분께 목포시 산정동 남항 부두에 정박 중이던 부산 선적 59t급 예인선에서 기름이 유출, 인근 해상으로 확산해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다.

이날 사고는 예인선의 연료유 이송펌프 스위치 고장으로 적재된 방커A유 6.8kℓ가 공기 구멍을 통해 바다로 쏟아지면서 발생했다.

예인선 기관장 황모(70)씨는 "새벽 5시부터 연료유 이송 작업을 했는데, 작업이 완료되면 작동해야 할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연료가 계속 유출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자동 잠금 장치 기능을 믿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기름은 수협~연안여객선터미널~목포해경전용부두 등 남항부두 반경 2km까지 확산했다.

해경은 연료 이송 작업이 통상 30분~1시간이면 마무리된다는 예인선측 설명에 따라 최소 30분 이상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사고 해역 주변에 오일펜스 40m를 설치하고 122 구조정 등 방제정 11척과 흡착포와 유포수기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해경은 예인선 기관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기존 요양병원도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화재 안전 인증 필수...간호조무사 등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정부가 새로 짓는 요양병원 뿐 아니라 기존 요양병원도 화재 대비 스프링클러를 모두 갖추도록 지원한다.

또 앞으로 요양병원은 화재 안전 기준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일정 수준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갖춘 요양병원으로서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월 전남 장성 효실전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난 달 26일부터 전국 1천284개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가 착수됐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마련될 대책에는 ▲ 신규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중) ▲ 방염물품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관련, 복지부는 "기존 요양병원까지 스프링클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전반적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퇴직 소방관 등을 활용해 '대피 지원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요양병원 인증제도 역시 손질된다. 인증 항목 가운데 화재 안전 분야를 '필수 항목'으로 바꾼 뒤, 다른 항목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화재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 인증을 내주지 않는다.

또 복지부는 다른 현안인 세월호 사고 수습과 관련, "희생자 가족에 대한 건강·심리·생계 지원, 현장 체류 실종자가족에 대한 의료·심리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의 안정적 운영체제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최저생계비' 절대 기준 하나로 모든 종류의 기초생활보장급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급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중알까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Advanced Partner SIEMENS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흥 지멘스 상무점 약업법인인증 501호 노형(은선지점) 이비동감지점